

# ‘트윈데믹 대비’ 해열진통제 50% 추가공급...매점매석 단속

보험 약가 70~90원 인상...환자부담 100~200원 ↑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 생산량 보고해야  
약국·도매상 수급량 점검...재고 축적시 제재 조치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환자 증가에 대비해 해열진통제 공급량을 늘린다. 제약사에 긴급생산을 지시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할 방침이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약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 해열진통제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한다. 13개월 간 평균 공급량은 6760만정이다.

특히 겨울철·환절기 수요 급증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5개월 간은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생산량을 60% 이상 늘린다. 이 기간 공급량은 7200만정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약가도 기존에 1정당 50원 수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70~9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약가 인상은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물량 기여도를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내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약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회 처방당 100~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1월까지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한다.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부 환수하는 등 이행 여부를 계속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및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수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으로 제재한다. 복지부는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가 파악될 경우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형

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에 공급보고 기간을 기존 출하 1개월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을 요청한다.

이번 조치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판매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과는 무관하다.



어린이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이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자주 처방되는 약은 진통·해열제와 항생제, 기침·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가려움 약 5가지로 구분된다. 진통·해열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이 해당되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갓 태어난 아이도 복용이 가능하다. 두통·복통·귀통증·인후통 등 통증이나 골절, 열이 날 때 먹으면 된다.

## 진통·해열제와 항생제, 기침·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가려움 약 어린이에 자주 처방되는 약 5가지...주의사항은?

“의사 특별 지시없으면 어린이 메스꺼움 치료약 먹여선 안돼”  
“유효기간 지난 약 효과 없어...오히려 건강에 해울 수 있어”

이부프로펜은 생후 3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복용할 수 있다. 두통·복통·귀통증·인후통 등 통증이나 골절, 열이 날 때 먹으면 되지만, 천식이 심한 아이는 피해야 한다.

아스피린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한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드물지만 매우 위험한 질병인 라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예, 세균성 폐렴·요도 감염·중이염·부비동염 등)에 효과가 있다. 자녀가 항생제를 복용한 지 며칠 후 증상이 호전된 것처럼 보더라도 처방받은 전체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세균이 모두 사멸하지 않아 감염이 1~2주 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혈 완화제 비강 스프레이를 포함한 기침·감기약은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복용해선 안된다. 12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식수수 비강 스프레이와 방울약(drops)을 사용하면 막힌 코를 없앨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재채기·부기·발진을 포함해 알레르기나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으로, 때때로 구강 건조·위장 장애·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어린이에게 많이 처방 되는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알레르기·천식·벌레 물림·습진·염증·염증·부기·가려움증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어린이에게 메스꺼움 치료약을 먹여선 안된다”며 “일반적으로 구토는 오래가지 않으며 소아는 대부분 약 없이 호전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집안에 방치된 약을 아이에게 무심코 먹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경구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